

# 백승준 행정학 강의계획서

“수험이론의 전체흐름을 이해하여 사례에 대한 적용과 문제해결능력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비전공자 및 입문자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강의!”

## ■ ■ 담 당 백 승 준

- 한국행정학(유민봉 著) 개정위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 (전)서울대정부혁신시스템센터연구원
- (전)한국조사회학회연구원
- (전)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식약청, 산림청 등 혁신연구원 역임

## ■ ■ 강의일정 2017년 2/7(화) ~ 2/23(목), 총 15회 ※ 월~토 강의

## ■ ■ 시 간 [저녁 실강반] 6시40분 ~ 10시10분

## ■ ■ 강의교재 ▶ 한국행정학(유민봉, 서점구매) + 입문자용 행정학 WORKBOOK(백승준, 학원판매, 실비제공) + 보충자료(제공)

## ■ ■ 원론강의 개설취지 ■ 입문자를 위한 강의 - 기본서 활용과 기출분석을 통한 안정적 기반 확립

수험에서 모험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의 시기에 행정학(行政學)이라는 학문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를 논리적 방법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안정적  
기반과 토대가 닦여져야 이후의 순환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 ■ ■ 원론강의 강의특징 ■ 한국행정학(유민봉 著)을 가장 잘 전달하는 강의

행정고시의 행정학은 『한국행정학(유민봉 著)』으로 입문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고, 전국의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적극 추천하시는 입문용 교과서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민봉 교수님과 한국행정학 개정위원으로 참여한바 있는 백승준 선생을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 ■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

경제학에서 미시와 거시가 모두 중요하듯이 행정학도 총론과 각론을 유기적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총론과 각론을 모두 중요히 다루어 원론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각론의 여러 문제해결기법들은 고시 과목 가운데서도 행정학에서만 다루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시작과 정에서부터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시각을 닦지 못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정치학과 행정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행정학 특유의 응용사회과학적 시각을 익히기 위해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요합니다.

## ■ 행정학 입문자

### 추천 학습법

## ■ 초심자가 『한국행정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행정고시 행정학은 논술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답안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독성 좋은 책을 통해 기초부터 정리해야 다른 책으로 바꾸지 않고 심화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험경제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범위의 확장성 때문에, 수험가에서 통용되는 한국행정학이나 새행정학, 정정길 교수님의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를 보더라도 빠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교과서가 빠진 내용이 많은 상황이라면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보충자료와 함께 공부하되, 철저한 이해를 통한 논리적 사고가 전제되고 난 이후, 강사가 저술한 수험서 등으로 교재를 옮기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전략적으로 보건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문기본서로서 가장 적합한 책이 유민봉 교수의 『한국행정학』입니다. 추후에 1순환부터는 정리된 강사의 수험서를 병행하시되 2순환 및 3순환은 이전순환에서 이해한 바를 토대로 실력을 심화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학 입문은 반드시 『한국행정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 입문교과서의

### 종류와 특징

| 교과서명        | 출판사   | 저자  | 특징   |
|-------------|-------|-----|--|
| 한국행정학       | 박영사   | 유민봉 |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로 자리매김. 거의 100% 이상의 수험생이 보는 교재. 2차 시험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재로서 내용도 좋지만, 글 자체의 논리성이 높으며 최신소재도 잘 반영되어 있다. 초보자라면 반드시 읽어야할 필수 입문서이다. |
| 새행정학        | 대영문화사 | 다수  | 2010년 초까지 가장 많이 보던 교재. 목차구조가 잘 잡혀있다는 평가.<br>저자가 많은 관계로 각 대학에서 개론서로 채택되는 비율이 높아, 고시촌에 입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대명출판사 | 정정길 | 행정학의 총론적 방향을 잡는 다는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어짐.<br>정정길교수님의 행정학계에서의 영향력과 막강한 제자라인을 통해 꾸준히 언급되어지는 책.   |

※ 입문서와 수험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서  
활용시기  
(한국행정학 기준)

| 순환       | 방학<br>입문자강의                                       | 예비순환  | 1순환                              | 2순환                     | 3순환               |
|----------|---|---|----------------------------------|-------------------------|-------------------|
| 순환<br>특징 | 입문자 강의-사<br>실상 예비순환<br>입문전 과목의<br>생소함을 없애<br>는 강의 | 시작하는 강의<br>로서 기본강의<br>보다는 발전된<br>형태의 강의.<br>많은 수험생들<br>이 기본강의 없<br>이 예비순환부<br>터 입문하는 경<br>향도 강하다. | 본격적인 심화<br>강의<br>(3일에 한번 시<br>험) | 심화강의<br>(2일에 한번 시<br>험) | 실전모의고사<br>(매일 시험) |
| 교재       | 교과서   | 교과서   | 교과서+<br>강사 수험서                   | 강사수험서                   | 강사수험서             |

※ 교과서(한국행정학 등)와 수험서(강사의 정리된 수업교재)를 구분합니다.

■ 한국행정학  
장점 분석

- 가독성이 높고, 밀도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여러 차례 읽다보면 행정학적 글쓰기가 자  
연스럽게 학습됩니다. 고시 행정학은 논술로 진행됩니다.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좋은 문장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 행정학의 총론과 특히 NPM과 Governance 파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매우 탁월함)
- 각론 중에는 최근 기술로 연속 언급된 전략관리(strategic management)파트가 자세히 수  
록된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 분량이 적더라도 이해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입문서로 최적이다. 많은 내용을 수록하  
기 위해 나열식으로 된 교재는 여러 번 공부를 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유민봉 교수님  
교재로 기본기를 익히고 차후에 순환과정을 통해, 『강사수험서』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큰 유혹은 많은 행정학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모두 다루고 싶은  
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이 체제의 연결과 흐름을 분산시킬 때는 과감하게 제외시켰다. 기  
존의 백화점식 교재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편 지식을 전하기보다 행정  
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때  
도 지나친 설명이 체제의 흐름을 방해할 때에는 이것을 각주 형태로 처리하여 책 전체의  
체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민봉 교수님 머릿말)”

| 강의회차    | 날짜        | 강의내용   |
|---------|-----------|--|
| ■ 제 1 회 | 2월 7일(화)  | <p>【행정학 입문-오리엔테이션】</p> <p>행정학의 입문과정이 진행됩니다. 행정학은 과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진단과 처방의 문제해결적 성격을 모두 갖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의학(醫學)과도 속성이 비슷한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주요 초점은 비전공 · 초심자라도 행정학에 대한 흥미를 느껴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p>  |
| ■ 제 2 회 | 2월 8일(수)  | <p>【공공가치】</p> <p>공공가치(public value)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행정학은 경험적 · 실증적 지식뿐만 아니라 당위적 · 규범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됩니다. 전통적인 빈출소재이며, 작년 행정고시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해,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부분으로 예상되며, 위에서 배운 입문자용 철학특강을 알면 정말 쉽게 공부되는 부분입니다.</p> <p>【학문적 기초소양을 위한 특강 - 수험을 위한 행정 · 정치철학(哲學)특강】</p> <p>피해가봐야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학이 소위 ‘뜬구름 잡는 과목’ 이라고 느끼는 이면에는 철학(哲學)과 다양한 사상에 대한 생소함이 있습니다. 수험과 밀접한 내용으로서, 입문을 위해 필요한 필수 콘텐츠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p> <p>기본기라 갖춘다 함은 이런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파트를 이해하고 난뒤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각도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p> <p>아울러,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여타의 과목에 있어서도 기본기를 확립할 수 있는 강좌로서 비전공 · 초심자들이 수험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들로만 구성합니다.</p> |
| ■ 제 3 회 | 2월 9일(목)  |  |
| ■ 제 4 회 | 2월 10일(금) | <p>【행정학 발달사-미국행정학 발달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과의 비교】</p> <p>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미군정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영향력은 19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신공공관리주의를 통해 절정을 맞게 됩니다.</p> <p>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너무나 상이한 역사와 행정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정이론은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행정이론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정통파 행정학의 등장과 완성, 1940년대부터의 정치학적 행정학으로의 복귀, 1960년대부터의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등장, 1980년대부터의 대통령과 행정윤리론 및 신공공관리론 등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하여서만, 미국의 행정학, 즉 현대행정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미국행정학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적 행정학 정립의 기초도 다질 수 있게 됩니다.</p>  |

■ 제 5 회 2월 11일(토)

【NPM과 거버넌스】

재정운영의 실패와 강한 정부의 불신으로 서구사회에서 야기된 신자유주의 사조는 행정학적으로 NPM의 직접적인 동인(動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지향성과 관리지향성의 한계에서 Governance의 개념 대두의 원인이 됩니다.

국정운영에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는 거버넌스는 그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 만큼이나 논의의 시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완벽히 이해해야 현대행정학의 논의를 정확히 배울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1순환 과정을 통해 여타의 거버넌스론과 병행하여 발전된 논의가 진행됩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자연스러운 행정학적 시각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 제 6 회 2월 13일(월)

【행정의 처방적 성격: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관리】

행정의 처방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행정학은 인접한 순수사회과학과는 달리 문제해결지향적이고 처방적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전략기획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미션(mission) · 비전(vision) · 전략(strategy)의 기본용어를 숙지합니다.

【성과관리】

현재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로 대표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BSC, 성과계약등평가, 성과관리에산제도 등 성과관리 관련 이슈들을 확인합니다.

■ 제 7 회 2월 14일(화)

■ 제 8 회 2월 15일(수)

■ 제 9 회 2월 16일(목)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최근 행정학의 새로운 키워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입니다. Web2.0의 양식이 적용된 Government 2.0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부운영에서 전자정부를 빼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난센스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축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에 정보체계관련 내용을 반영한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08년도 ICT와 BPR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09년도와 10년도에는 역시 정보시스템으로 답안을 마무리 지으면 좋은 전략적관리와 통합성과관리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행정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 에서나 언급되었을 전자정부의 논의가 행정학에 빈번히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BPR, ERP등 전자업무처리의 핵심 메카니즘을 학습합니다. 한국행정학 16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 제 10 회 2월 17일(금)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이란 직무와 개인의 통합과정으로서 정부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입니다.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공공인사행정을 다루어봅니다. 전통적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인사행정 혁신에 대해 학습합니다.

■ 제 11 회 2월 18일(토)

■ 제 12 회 2월 20일(월)

【조직론】

조직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사항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다보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조직행동론과 조직구조론을 모두 다루되, 범위를 폭넓게게 해석하여 조직문화, 갈등관리도 이 부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3 회 2월 21일(화)

■ 제 14 회 2월 22일(수)

【재무행정론】

전통적 재무행정이론과 재정개혁및 혁신의 모든 부분을 아우릅니다. 참여정부 기획예산처나 현정부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취합하여 현실정책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재무행정론은 뚜렷한 개혁적 성과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빈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제 15 회 2월 23일(목)

【개별대면특강】

수업이 끝난 뒤 일정을 정하고 수강생과 강사가 직접 만나서 개인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개인 혹은 그룹 여부는 원하시는 형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 개별 과외 특강

개별피드백을 통해 수준별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수험 전반의 멘토링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 ■ 입문자 원론 강의(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진행)

강의교재: 한국행정학(유민봉 著) + 주요교과서 통합자료

행정학의 입문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어떠한 공부를 하더라도 시작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비전공·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합니다.

### ■ 예비순환 (2017년 5월)

강의교재: 한국행정학(유민봉 著) + 주요교과서 통합자료

강의내용: 행정학의 기초 및 기본내용을 전체적 흐름에 맞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전공 초심자라도 행정학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추후 1, 2, 3순환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행학습을 합니다.

### ■ 1순환 (2017년 9월)

강의교재 : 행정학 WORKBOOK(저자직강) + 한국행정학 + 특수프린트

기본강의와 예비순환을 통해 이해된 행정학의 기본 틀을 실제 실전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기존의 모든 교과서와 논문을 기출문제의 틀에 맞춰 정확히 집필한 workbook을 통해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답안지 작성론에 들어가게 되고 배운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 2순환 (2017년 12월)

강의교재: 행정학 WORKBOOK(저자직강) + 한국행정학 + 2순환용 특수자료 + 논문자료

강의내용: 기본강의와 예비순환 및 1순환에서 내용을 심화하여 강의합니다. 특히 제도와 각론에 대한 특화를 통해 행정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을 넘어서 실제 답안지 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합니다

### ■ 3순환 (2018년 4월)

강의교재: 행정학 최종정리(저자직강) + 한국행정학 + 3순환용 특수 자료(제공)

강의내용: 매일 50점~60점 문제를 통해 실전훈련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학의 모든 자료나 내용을 정리합니다. 별도의 서브식 자료를 통해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면서 새로운 제도, 변경된 제도 등 최신 이슈를 모두 확인하여 실제 시험을 준비합니다

### ■ 4순환 (2018년 6월)

강의교재: 4순환용 특수 자료(제공)

강의내용: 매일 100점 문제를 통해 실전감각을 고도화 시킵니다. 불의타 문제 등 대비하며, 사실상의 마무리 작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